

예비 입양가족의 입양 현안과 심리적 불안*

김 향 은¹⁾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입양가족의 초기 가족발달을 규명하기 위해 20~40대의 예비 입양부모 62명(남 30명, 여 32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입양 현안, 심리적 불안 등을 조사하였다. 심리적 불안은 Spielberg, Gorsuch와 Lushene(1970)의 상태-특성불안척도(STAI)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입양부모들의 개인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입양 동기, 입양 과정, 입양 공개와 같은 주요 이슈와 관련해 예비 입양부모들이 겪어 온 과정과 향후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입양을 앞두고 지각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은 평상시 불안을 유의하게 상회하였다. 입양으로 인한 불안은 종교나 가족생활 만족도와 같은 부모의 배경 변인, 입양 과정에서의 난관,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사실 공개 계획, 부모역할 자신감과 같은 입양 실재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양가족을 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입양가족의 초기 가족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입양가족의 복지를 강화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입양, 입양가족, 입양부모, 예비 입양부모, 심리적 불안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교신저자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hekim@kosin.ac.kr)

I. 서론

가족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률적·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다(이소희, 최덕경, 강기정, 김훈, 2004).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 입양을 통해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발달할 수 있어 입양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Altshuler & Gleeson, 1999; Borders, Black, & Pasley, 1998).

입양은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뿐 아니라 친생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모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갖기 원하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 전통에 따라 입양을 거리끼는 풍토가 지배적이었다.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황에서 가계계승을 위해 입양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남아를 입양하는 경우가 전형을 이루었다(이경안, 2003; 이봉주, 2004). 또한 입양아와 그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도 편파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풍토는 해마다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의 배치 결과를 보더라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한 해 발생 하는 요보호아동 가운데 입양 배치되는 경우는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다. 2012년 현재 요보호아동의 배치 현황을 보면,

6,927명의 요보호아동 중 과반수인 3,748명이 시설보호에 처해지고 있으며 이에 못 미치는 3,061명이 가정보호에 처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가정보호에 조치된 경우라 해도 일시보호의 성격을 띠는 가정위탁에 배치되는 경우가 2,289명, 입양가정에 배치되는 경우가 772명으로,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가운데 입양을 통해 영구적인 가정을 찾게 된 경우는 고작 16%에 불과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한국전쟁 직후 전쟁고아의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23만 건의 입양이 성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2/3가 국외입양이고 약 1/3이 국내입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해외입양 반세기를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해마다 입양아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해외로 송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들어 정부가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체 입양 가운데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좀처럼 국내입양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의 동향을 보면 국내입양이 오히려 감소되거나 정체된 상황이다(통계청, 2013).

그동안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왔음에도 부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차제에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 외에도 국내 입양가족의 심리적·발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들의 순조로운 적응과 성공적인 입양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입양가족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지원 역시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데,

입양가족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 가운데 하나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입양 가족의 복지를 도모하는 일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입양가족을 주제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양적인 면이나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정책적 이슈나 제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김유경, 임성은, 변미희, 2010). 비밀입양이 관행인 국내입양의 실제에서 좀처럼 공개되기 어려운 입양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 않은 것도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선행연구 가운데 다수는 입양제도나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의 연구다(김유경 등, 2010). 최근 들어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입양아나 입양부모의 발달적인 차원에서 입양 경험을 다루는 연구가 하나둘 눈에 띄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해도 주로 그 대상이 접근하기 쉬운 공개입양 가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개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입양 만족도, 입양공개 경험, 가족 기능 등을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개입양 부모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어 입양 과정에서 부딪게 되는 친족들의 반대, 사회적 편견이

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 친부모가 아닌 이유로 부모로서의 정당성을 위협받는 문제, 입양자녀가 부모의 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혼란 등을 다룬 연구(김향은, 2006; 배태순, 2000; 현태옥, 2004, Hayes & Kim, 2008)가 있다. 입양가족의 적응 및 심리적 문제를 다룬 연구 가운데는 장애아를 입양한 부모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연구(정맹진, 2002)와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입양모-자녀간 안정 애착을 맺기 쉽다는 것을 밝힌 연구(한동수, 2001)가 있다.

이 외에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후지원 욕구를 분석해 입양부모들이 정보적·정서적 지원의 출처로써 사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후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주체로는 입양가정 자조집단을, 사후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부모교육 또는 상담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한 연구도 눈에 띈다(김향은, 2002; 백경숙, 변미희, 2001). 한편 입양으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입양가족의 적응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권지성, 2003; 윤현선, 2001).

최근에는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공개입양 가정의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민혜, 2009)와 공개입양 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 및 관련 변인을 입양아동의 특성(안재진, 2002)과 입양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박미정, 2009)가 있다.

그리고 공개입양 가정의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2008;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11), 자아개념과 인지발달(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7; 2009), 의사소통(안재진, 2013;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10), 사회성 발달과 문제행동(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07;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을 조사한 연구 등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입양가족 연구를 망라해 볼 때, 성공적인 입양의 기준으로 입양아와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입양가족의 적응에 입양실제와 관련된 요인(예: 입양동기, 입양형태, 입양기간, 입양 당시 아동 연령 등), 개인적·관계적 요인(예: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방식 등), 사회적·제도적 요인(예: 입양제도, 사회적 지원체계, 사후지원 서비스, 자조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소미, 2011). 요컨대 입양가족의 가족적응의 경우에는 일반가족의 가족적응 보다 훨씬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 입양가족의 적응과정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역동을 가족형성 초기로부터 추적하여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별히 입양가족의 입양 후 적응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볼 때, 불임의 수용 및 극복,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에 대한 도전, 친부모가 아니라는 데서 갖게 되는 자격지심, 친자녀가 있을 때 겪는 양육갈등, 공개입양을 둘러싼 가족 안팎의 갈등, 입양부모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 등과 같은 애로사항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권지성, 2003, 2004; 권지성, 정익중, 민성혜, 신혜원, 2012; 장덕희, 이경은, 2011; 조효정, 2007). 이러한 결과는 입양부모들이 입양으로 인해 지각하게 되는 심리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도전을 내다보고 있는 입양 전 상황에서부터 예비 입양부모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하며 입양과 관련된 가족발달 초기의 심리 역동을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이상에서 그동안 수행되어 온 입양가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간략히 고찰해 보았는데, 대부분 소수의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입양 후 한 시점에서 입양가족의 문제를 일회적으로 조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입양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가족발달의 경로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양점도, 김호연, 1998). 즉, 입양은 입양가족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의 수행이나 규범적·비규범적 위기의 경험과 관련된 생애적 문제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양가족의 적응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입양을 적극 지원하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아직까지도 비밀입양의 관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입양아와 입양가족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수와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가 입양 이후의 시점에 있는 가족들, 그 가운데서도 공개입양을 선택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양 이전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비 입양부모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부모됨, 입양부모됨, 입양사실 공개 등의 발달과업을 안고 있는 이들의 심리 역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입양부모됨의 경험에 관한 연구 다수가 질적인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다(권지성, 2003, 2004; 권지성 등, 2012; 장덕희, 이경은, 2011; 조효정, 2007, 현대옥, 2004). 이와 같은 현실은 자칫 연구방법상의 편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의 한계를 우려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비 입양가족의 복지적 측면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입양을 앞둔 예비 입양부모들은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가족주의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다. 자칫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두려움에 쫓이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본인의 입양 결정에 대해 회의를 품거나 후회할 수도 있다. 입양에 대한 준비는 공식적인 입양의 절차를 잘 따르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입양아를 맞이했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가 될 준비를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입양을 촉진시키는 길은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사회 저변에 확산시키는 것 뿐 아니라, 입양가족이 떠안게 되는 긴장과 부담을 이해하고 입양가족의 적응력과 복지감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양을 앞둔 시점에서부터 입양가족의 입양 실재를 살펴보고 입양가족의 발달적 상황을 양적 접근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 입양부모들의 입양현안과 불안에 초점을 맞춰 입양가족 형성기의 역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입양가족을 위한 사전지원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성공적 입양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 입양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배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현안과 입양 실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부산시내의 4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상담을 마치고 입양을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입양 수속 및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입양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8월에 개정된 바 있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전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입양을 희망하는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사전에 예비

입양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내 4개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주최한 의무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을 표적집단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비 입양부모들은 2013년 7월, 9월, 11월에 단속적으로 실시된 사전교육에 참석한 예비 입양부모 6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경우는 30가족, 60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아내 혼자 참석한 경우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예비 입양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과 가족의 배경을 살펴보고 예비 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주된 입양 현안을 파악하며 이들이 입양을 앞두고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불안의 수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입양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입양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불안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입양과 관련된 불안이 부모들의 본성적인 불안과 유의하게 다른지, 부모들의 개인 및 가족 배경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지, 그리고 입양을 둘러싼 주된 이슈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예비 입양부모들을 위한 사전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

3. 측정도구

일반적 배경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입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 입양부모 당사자 개인 및 가족 차원의 특성을 성, 연령, 학력, 직업, 수입, 종교, 친생자녀 유무, 입양 자녀 유무, 결혼만족도, 배우자만족도를 묻는 기초사항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결혼만족도와 배우자만족도는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묻는 단일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입양 현안

국내의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가족 형성 초기에 겪게 되는 입양의 실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과 입양을 둘러싼 민감 사안 및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향후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입양 동기, 입양결정 과정에서 난관 경험의 유무와 종류, 가족과 친지,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입양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불안

심리적 불안은 김정택, 신동균(1978)에 의해 표준화된 상태-특성 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STAI는 성인의 불안을 조사하기 위해 Spielberger 등 (1970)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STAI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태불안의 경우 응답자가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을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상태불안 검사 각 문항의 맨 앞에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볼 때”를 첨가해 입양과 관련된 느낌을 직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STAI의 두 가지 검사를 함께 실시할 경우 상태불안 척도를 먼저 실시한 후에 특성불안 척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상태불안의 경우 검사가 실시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특성불안을 먼저 측정할 경우에 상태불안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화는 4점 리커트 척도로 하며, 도치된 문항(상태불안 10문항, 특성불안 7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채점한다. 따라서 두 하위척도 각각에 있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80점이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는 불안 상태의 강도가 증가하는 수준을 연속적으로 나타내어, 낮은 점수는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를, 중간 점수는 적정 수준의 긴장이나 염려를, 높은 점수는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STAI의 신뢰도(Cronbach α)는 상태불안 척도는 .88, 특성불안 척도는 .77이었다.

4. 연구절차

부산시 소재의 대표적 입양기관인 국공립 입양기관 1개소와 사립 입양기관 3개소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2013년 현재 이 4개 입양기관을 통해 상담을 거쳐 공식적으로 입양 수속을 밟고 있는 예비

입양부모들 가운데 이들 입양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는 예비 입양부모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예비 입양가족의 인구학적인 특성, 일반적인 배경, 입양을 둘러싸고 있는 주된 현안 및 민감 사안에 대한 질문과 입양으로 인해 유발된 상태불안과 개인의 본성적 불안인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2013년 7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두 6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 분석

먼저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과 주요 입양 실무에 관한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입양으로 인하여 유발된 불안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입양으로 인해 지각된 예비 입양부모들의 상태불안과 이들의 평상시 특성불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한편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과 관련해 느끼고 있는 상태불안이 이들의 일반적인 배경이나 주요 입양 현안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F*값이 유의하게 보고된 경우에는 Scheffé 중다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에는 SPSS WIN 14.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 입양부모의 개인 및 가족 배경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를 보면, 비밀입양이 여전한 관행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입양가족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정황으로 인해 입양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연구자가 접촉하고 협조를 얻어내기 쉬운 공개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입양 이후의 상황이나 문제를 조명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예비 입양가족의 배경적인 특성이나 입양 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예비 입양가족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입양부모의 인구적 특성, 즉 개인과 가족 차원의 배경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 입양가족 집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입양부모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우선 예비 입양부부의 개인적 배경 가운데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을 이루고 있었다.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 20대 순이었다. 교육 수준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전문직, 관리직 순이었다. 월평균 가족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문항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	남	30	48.4
	녀	32	51.6
연 령	20대	3	4.8
	30대	25	40.3
	40대	34	54.8
학 력	고 졸	14	22.6
	전문대졸	19	30.6
	대 졸	19	30.6
	대학원졸	10	16.1
직 업	관 리 직	8	12.9
	생 산 직	4	6.5
	서비스직	7	11.3
	전 문 직	17	27.4
	전업주부	18	29.0
	기 타	8	12.9
월소득	150만원 미만	1	1.6
	150~199만원	7	11.3
	200~299만원	13	21.0
	300~499만원	26	41.9
	500만원 이상	15	24.2
종 교	개신교	33	53.2
	천주교	2	3.2
	불 교	11	17.7
	없 음	16	25.8
친자녀	유	16	25.8
	무	46	74.2
입양자녀	유	5	8.1
	무	57	91.9
결 혼 만족도	매우만족	35	56.5
	약간만족	22	35.5
	보통	5	8.1
배우자 만족도	매우만족	40	64.5
	약간만족	17	27.4
	보통	5	8.1

소득은 300~499만원이 가장 큰 비율을 이루었고 그 다음은 500만원 이상, 200~299만원 순이었다.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이루었고, 그 다음은 무종교, 불교, 천주교의 순이었다. 이들의 가족 구성적 특성을 보면 친자녀가 있는 경우가 26%,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8%에 달했다. 한편 자신의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지각되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을 표하고 있었다.

2. 입양 현안과 실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입양가족의 주요 현안 및 실제 가운데서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결정하게 된 동기와 입양을 결정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고충, 입양사실을 가족 내외에 공개하는 것 등, 입양을 둘러싼 민감 사안에 대한 이들의 견해와 계획을 조사함으로써 입양가족의 초기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입양의 결정적 동기는 불임이었다. 입양을 먼저 제안한 쪽은 아내가 남편 보다 많았으나,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거리낌이 있었다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저변에는 입양아의 출생배경이나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였다.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주위의 반대를 경험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리고 건강한 한국아기를 원했다. 거의 모든 부모가 입양 사실을 공개할 계획을 표명하고는 있었으나 공개 대상과 시점, 친부모 접촉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응답자의 95%가 공개입양 계획을 표명하고

있었으나, 공개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가 1/3에 불과했고, 공개 시기도 입양전, 입양시, 입양후로 분산되어 있었다. 입양자녀에게 입양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60%였다. 나머지는 공개하고 싶지 않으나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 알려줘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알려주지 않겠다, 절대로 비밀로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반수의 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였지만, 90%에 육박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과 관련해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예상하고 있었다(표 2 참조).

3. 입양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느끼게 되는 불안의 정도와 입양과 관계 없이 부모들 개인이 평상시에 소지하고 있는 불안의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이 두 불안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입양이라는 주요 사건이 입양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로 하여금 본인의 특성 불안 보다 유의하게 높은 불안을 경험하도록 작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양으로 인한 불안이 평소의 기본적인 불안 성향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입양이 가족에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되는 위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입양으로 인해 유발되고 증대된 불안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돕는 체계적·효과적 조기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현안과 실제

문항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입양동기	불 입	44	71.0
	자녀 수의 확대	6	9.7
	부모가 되어주기	4	6.5
	신앙적인 소신	7	11.3
	대사회적 기여	1	1.6
난관경험	없 음	15	24.2
	경제적 부담	3	4.8
	입양아 배경	10	16.1
	사회적 차별	17	27.4
	입양아 부적응	10	16.1
	자녀간 갈등	1	1.6
	기 타	6	9.7
제 안 자	남 편	21	33.9
	아 내	30	48.4
	공 동	11	17.7
반대경험	없 음	47	75.8
	배우자	1	1.6
	자 녀	1	1.6
	본 가	2	3.2
	처 가	1	1.6
	친 지	6	9.7
	기 타	4	6.5
입양조건	성	34	54.8
	연령	47	75.8
	건강	53	85.5
	외모	13	21.0
	지능	14	22.6
	혈액형	28	45.2
공개계획	유	48	93.5
	무	14	6.5
공개대상	조부모	8	12.9
	친 지	27	43.5
	모 두	23	37.1
	기 타	4	6.5

(계속)

문항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공개시기	입양전	27	43.5
	입양시	14	22.6
	입양후	21	33.9
자녀에 공개	절대 비밀	1	1.6
	가급적 비밀	5	8.1
	불가피한 공개	18	29.0
	당연 공개	37	59.7
자녀 공개기	기 타	1	1.6
	2세 이전	3	4.8
	2~5세	17	27.4
	6~9세	22	35.5
	10~12세	8	12.9
	13~18세	3	4.8
친부모 접촉	19세 후	9	14.5
	절대불가	15	24.2
	정기교류	2	3.2
	빈번접촉	1	1.6
	자녀견해	43	69.4
부모 자신감	기 타	1	1.6
	매우	8	12.9
	약간	29	46.8
	보통	24	38.7
	거의	1	1.6
양육 스트레스	전혀	0	0.0
	전혀	1	1.6
	거의	6	9.7
	보통	37	59.7
	다소	18	29.0

표 3. 예비 입양부모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구 분	N	M	SD	t
상태불안	62	46.02	4.24	4.73***
특성불안	62	40.27	3.15	

*** $p < .001$.

입양으로 인한 불안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성, 연령, 학력, 직업,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종교, 결혼 및 배우자 만족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개신교인 보다는 천주교인이 유의하게 높은 불안을 보였고,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보다는 보통인 경우 유의하게 높은 불안을 보였다(표 4~6 참조).

이처럼 입양부모들의 개인과 가족 배경에 따라 불안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주요 가족 사건과 관련된 위기적인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역량이 유용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개인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표 4. 예비 입양부모의 배경별 상태불안 비교

구 분	N	M	SD	F
개신교	33	43.76	6.15	4.34***
천주교	2	61.50	12.02	
불 교	11	46.18	8.98	
무 교	16	48.63	9.00	

*** $p < .001$.

표 5. 예비 입양부모의 결혼만족도별 상태불안

구 분	N	M	SD	F
매우만족 ^a	35	44.03	6.47	8.60***
약간만족 ^b	22	46.32	8.19	
보 통	5	58.60	8.23	

주. a/b: 추후검사 결과 a와 b간의 유의차가 발견됨.

*** $p < .001$.

표 6. 예비 입양부모의 배우자만족도별 상태불안

구 분	N	M	SD	F
매우만족 ^a	40	44.35	6.99	12.17***
약간만족 ^b	17	45.59	6.40	
보 통	5	60.80	9.58	

주. a/b: 추후검사 결과 a와 b간의 유의차가 발견됨.

*** $p < .001$.

입양 현안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는 입양에 대한 거리낌의 경험 유무에 따라 불안 지각이 유의하게 달랐다. 친자녀와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 보다 입양아의 부적응 문제,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느끼는 불안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입양 거리낌의 경험에 따른 상태불안

구 분	N	M	SD	F
경험없음	15	42.47	8.73	3.01*
경제부담	3	46.00	1.00	
아동배경	10	50.70	6.67	
사회차별	17	53.76	5.45	
아동문제	10	52.20	10.39	
친자문제	1	43.00		
기 타	6	42.00	6.26	

* $p < .05$.

또한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아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수준에 따라서도 부모들이 지각하는 불안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기 꺼리는 입장에 있을수록 입양에 대해 느끼는 불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입양아에 대한 공개 입장에 따른 상태불안

구 분	N	M	SD	F
절대비밀	1	68.00		3.05*
가급비밀	5	49.20	4.66	
소극공개	18	47.83	7.79	
전면개방	37	44.22	7.97	
기 타	1	42.00		

* $p < .05$.

한편 예비 입양부모들이 향후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의 정도에 따라 서로 입양으로 인해 지각하는 심리적 불안의 수준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에 자신이 없는 부모일수록 심리적 불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부모역할 자신감에 따른 상태불안

구 분	N	M	SD	F
매우자신	8	39.63	7.19	7.60***
약간자신	29	43.45	5.71	
보 통	24	51.21	8.58	
자신없음	1	47.00		

***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과 관련해 느끼는 불안은 종교, 가족생활만족과 같은 개인과 가족의 배경적 변인 뿐 아니라 입양결정 과정에서의 거리낌, 입양자녀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부모가 보이는 자세의 적극성,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같은 입양 실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990년대 중반에 정부가 국외입양의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된 이후로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지양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비롯해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강, 입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입양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형편에 있다. 이러한 세태의 기저에는 혈연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족주의 전통과 비밀 위주의 입양 관행 등이 여전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킨다. 아울러 기존의 입양가족 지원 제도와 체계가 과연 입양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국가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10년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고수해왔으며 1998년 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국으로 지목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2014.3.10).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아동 인구의 양적·질적 담보를 위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가 주요 정책 이슈가 되고 있으며, 미래세대구의 자질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 확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김유경 등, 2010). 그리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족의 문제와 발달적인 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못잖게 학문적인 관심도 증폭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입양가족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형편을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금껏 거의 다루지 않은 예비 입양부모들의 현황과 과제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입양의 출발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개인 및 가족발달적 관점에서 평생에 걸친 입양가족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축적해 왔다(Barth & Brooks, 1997). 연구 주제도 다양하여 입양과 관련된 핵심 주제로 인식되어 온 공개입양이나 입양아의 정체감에 관한 연구(Hoopes, 1990; Miles, 1999) 외에도, 인종이 다른 자녀를 입양했을 때의 가족발달이나 사후서비스에 관한 연구로 연구의 주제가 확장되고 있다(Frasch & Brooks, 2003; Hartman & Laird, 1990).

차제에 우리나라의 입양연구도 지금까지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각에 입각하여 입양가족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특별히 그동안 입양가족에 대한 연구 주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온 입양가족의 초기 개인 및 가족발달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입양가족의 발달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후

순조로운 가족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다루는 경험적·실증적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Kim,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예비 입양가족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발달적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 입양부모들의 심리적 불안을 다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본격적인 입양 수속과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입양부모 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배경과 입양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입양으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이들의 본성적 불안 수준과 비교해 보고, 입양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이 개인적·가족적 배경이나 입양 현안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으로 인해 지각하는 상태불안의 수준은 이들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 수준인 특성불안의 수준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비 입양부모들이 느끼는 상태불안은 일반적 배경 가운데 종교, 결혼만족도, 배우자 만족도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개신교인이 천주교인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냈고, 자신의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냈다. 입양과 관련된 변인 가운데서는 입양을 주저하게 된 이유로 입양자녀의 배경이나 부적응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그리고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알리는 것을 결끄러워하는 입장일 때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 사항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양으로 인한 불안이 개인의 기본적인 불안 성향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지각된 것은 입양이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위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와 같은 불안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조기의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비 입양부모의 개인 및 가족 배경과 입양 현안에 관한 일부 변인에 따라 불안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수의 예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본 연구의 경우, 경우에 따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추후연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본 연구 결과는 주요 가족 사건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개인 및 가족 배경과 입양 현안이 입양가족의 성공적 발달과업 수행에 효과적 대처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입양가족의 가족관계와 기능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인습적인 입양관행을 지양하도록 돕는 지원 방안을 통하여 입양가족의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입양부모의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입양가족 연구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입양가족의 가족형성 초기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이들을 위한 가족복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대로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이 이뤄지기 전부터 공식적 입양 수속을 마친 후로 전생애에 걸쳐 입양가족이 당면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입양가족의 발달과업 수행을 돕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원활한 기능작동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 시스템의 일부로 예비 입양가족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자극하고 효과적인 사전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끝으로 추후 예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입양가족의 초기 발달 과정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양적 확충은 물론 질적 보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보다 많은 예비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발달과업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입양가족 됨을 향한 출발점으로서 입양가족의 초기 가족발달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불안과 같은 입양가족의 심리 역동을 일반가족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입양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도도 추구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일선 입양기관을 통한 예비 입양가족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여전히 비밀 입양이 관행인 현실에서 공식적 입양수속이

종료된 후 입양가족을 사후지원하거나 추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비해 예비 입양가족의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입양기관과 기관 내 실무 담당자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입양을 앞둔 시점에서 입양 자녀 양육을 비롯해 가족체계 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다. 이들이 직면하는 발달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정부와 현장에 있는 입양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셋째, 예비 입양가족으로 하여금 가족발달 과업을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하고 입양 전후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역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입양을 위한 출발을 지원하는 각종 사전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예비 입양가족이 당면하게 되는 도전적 과제와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직면한 발달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돕고 평생에 걸친 장기적 가족발달의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각종 사전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용 차원의 연구와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현안 및 심리사회적 역동에 대한 대처와 관련되어 있는 사전지원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지원 서비스를 체계화·전문화·다양화 하여 현장 보급하는 실천적 노력이 촉구된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입양은 입양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종결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입양 전 계획으로부터 입양이 이루어

지는 시점을 지나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가족 발달 과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애에 걸친 입양가족의 적응을 돕는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입양가족의 가족형성 초기 도전적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도 특수한 가족발달 과정을 겪게 될 우리 사회 내 소수가족인 입양가족의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가족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입양을 앞둔 많은 이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입양 후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높게 예견하며 평상시의 기본적인 불안 수준 보다 유의하게 높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입양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입양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양육 스트레스의 감도를 낮춰줄 수 있는 서비스로 입양부모의 욕구에 바탕을 둔 체계적 사전·사후 지원 서비스의 강화가 요청된다.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사전 부모교육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예비 입양부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실행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촉구된다(변미희, 안재진, 박창우, 이미선, 정혜선, 2012).

한편 입양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입양부모들이 능동적·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의 대부분이 공개입양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공개의 대상, 범위,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며 가변적인 공개 계획을 표명하고 있었다. 친가족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는 서양의 공개 개념과는 다르게 국내입양의 공개 개념에는 친가족과의 접촉이 배제된 모습이었다. 또한 공개입양을 계획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양자녀에게는 입양사실의 공개를 꺼리는 양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양 이후 입양사실의 공개와 관련해 가족 내 갈등과 혼란의 발생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고 이 도전 과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극복하게 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요청한다(Kim, 2012).

원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영구적 가정과 부모를 갖게 하는 입양이라 하겠다.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조치를 보면 대부분 시설보호와 위탁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처해지는 경우는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향후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라도 잠재적 입양 부모의 발굴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가족의 긍정적인 가족발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입양 전후 서비스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그리고 전생애에 걸친 입양가족의 장기적인 가족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입양가족의 순조로운 적응과 건강한 가족발달에 기초를 이루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적 연구의 체계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지성 (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지성 (2004). 공개 입양 가족의 적응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아동복지학, 17, 7-48.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2008). 입양 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23, 71-102.
- 권지성, 정익중, 민성혜, 신혜원 (2012). 위탁 아동 입양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7, 73-107.
- 김소미 (2011). 입양가정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경, 임성은, 변미희 (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에 관한 표준화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 김향은 (2002). 입양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복지학회, 7(2), 35-50.
- 김향은 (2006).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종단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공개입양 가정의 입양 현황과 자조집단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61-80.
- 박미정 (2009). 국내 공개입양가정의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 69-98.
- 배태순 (2000).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의 뿌리 추구 욕구에 대한 이해.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6(1), 31-48.

- 백경숙, 변미희 (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권리연구, 5(2), 81-95.
-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7). 입양 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1차 년도 영유아발달과 자아개념,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1(3), 449-469.
-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9). 국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261-279.
- 변미희, 안재진, 박창우, 이미선, 정혜선 (2012). 입양실무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입양 기관전문가 자문회의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2 요보호아동 현황.
- 아시아투데이 (2014.3.10). 한국 합계 출산율 1.18명, 10년째 OECD 최하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310010004784>에서 2014년 3월 11일 인출.
- 안재진 (2002). 우리나라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적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홀트사회복지연구, 2, 1-46.
- 안재진 (2013). 국내 공개입양가정의 입양의사소통 모형개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1, 1-38.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07).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87-219.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10). 공개 입양 가족의 입양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43-171.
- 양점도, 김호연 (1998). 국내입양 가정의 사후 관리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4(1), 47-61.
- 윤현선 (2001). 국내 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 역할 수행 자신감, 가족적응력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안 (2003). 불임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와 입양인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주 (2004). 한국의 입양: 현황과 미래전망. 입양 실재와 정책, 그리고 다문화. 대한 사회복지회 입양국제컨퍼런스, 61-89.
- 이소희, 최덕경, 강기정, 김훈 (200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서울: 대왕사.
- 장덕희, 이경은 (2011). 입양가족의 가족형성 경험과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159-181.
- 정맹진 (2002). 국내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혜 (2009).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정 (2007). 공개입양가족의 입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 입양 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II: 1차년도 자료의 사회성발달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2(2), 473-502.
-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11). 국내 입양 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8(4), 169-182.
- 통계청 (2013).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 한동수 (2001). 입양아의 입양 당시 연령, 양 어머니의 양육 기간 및 역할 만족도와 애착 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태옥 (2004). 공개 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tshuler, S., & Gleeson, J. (1999). Completing the evaluation triangle for the next century. *Child Welfare*, 78(1), 125-128.
- Barth, R. P., & Brooks, D.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tructure and size and adoption outcome. *Adoption Quarterly*, 1, 29-56.
- Borders, L. D., Black, L. K., & Pasley, B. K. (1998). Are adop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at greater risk for negative outcomes? *Family Relations*, 47, 237-241.
-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ky, A. B. (1998).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Development and clinical issues*. CA: Sage Publication.
- Frasch, K. M., & Brooks, D. (2003). Normative development in transracial adoptive families: An integration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Families in Society*, 84(2), 201-212.
- Hartman, A., & Laird, J. (1990). Family treatment after adoption: Common themes. In D. Brodzinsky & M. Schechter (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221-239).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ayes, P. N., & Kim, H. E. (2008). Openness in Korean adoption: From family line to family life. *Adoption Quarterly*, 10(3-4), 53-78.
- Hoopes, S. J. (1990). Adop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D. Brodzinsky & M. Schechter (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144-166).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H. E. (2012). *Developmental Tasks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in Korea*. Poster presented at the Rudd Adoption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iles, K. (1999). How to tell your child she's adopted. *Parenting*, 13(7), 219-220.
- Spielberger, C. D., Gorsuch, R. D.,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A: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4. 01. 18.
수정원고접수 : 2014. 02. 21.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The Adoption Practices and Psychological Anxiety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Kim, Hyang-Eun

Dept.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psychological anxiety experienced by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The subjects were 62 parents, 30 fathers and 32 mothers aged from their twenties to forties. The anxieties caused by adoption were compared with their usual level of anxiety by using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pielberger et al., 1970). In addition, the state of anxiety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was analyzed by related factors such as their general backgrounds and the adoption practices of prospective parents. One of the research findings was that it gave a clearer picture of the current status of prospective domestic adoptive parents and adoption practices in the first stage of adoption. Another major finding was related to state anxiety,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arents' trait anxiety and the different anxiety levels according to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religion and marital relationships and adoption practice variables such as experiences of being reluctant to adoption, planning of open adoption and their self-confidence as parents.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pre-adoption services for domestic adoptive families and for assisting in a more successful adaptation process were also suggested.

Keywords : adoption, adoptive family, adoptive parents,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psychological anxiety